

# 사슴의 사육관리

本會 獸醫師 성 유 석

## 1) 큰 사슴(성록)의 사육관리

사슴은 1년이 지나면 체구 및 모든 외형으로 보아 큰 모형의 형체를 갖추며 숫사슴의 경우 각좌 즉 머리위 부분에 뿔 쪽한 형태의 뿔이 약간 돋아 나온다.

암사슴은 2년이 되어야 큰 사슴으로서 구실을 할수 있게 된다.

### 가) 암사슴의 사육관리

새끼를 낳을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빠르면 9월 늦으면 12월, 1월 사이 발정을 시작 교미를 하여 다음해 5월말부터 낳기 시작한다.

겨울철 임신 기간 동안 영양 관리를 잘못해 난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추운 겨울 동안 추위를 이겨낼수 있는 고단위 사료인 영양이 높은 고단백질 사료를 많이 급여 하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초기임신 기간인 1~3개월 사이 태아의 착상 시기이므로 영양 공급의 차질이 있다면 유산내지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봄철에 이르러 태아의 성장 과정에 많은량의 고단백 사료의 공급은 태아의 과태로 인하여 난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오히려 좋지 않다. 이때는 적당한 량의 운동을 시켜서 태아가 과태 되

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는것이 매우 좋다.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사육장내에서 사육되는 사슴의 경우가 많으므로 운동 부족 비만등으로 말미암아 난산을 겪는 일이 임신 말기 분만시기에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이다.

### 나) 숫사슴의 사육관리

1년이 지나면 숫사슴의 경우 앞머리 부분에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징적인 특징이며 뿔의 성장은 성홀-문과 관계가 크므로 계절의 영향에 따라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성숙된 숫사슴의 경우 각화된 뿔은 보통 3~5월 사이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뿔을 떨어지고 겨울동안 난폭했던 자태는 변하여 아주 온순한 사슴이 된다.

이때부터 머리에는 혈액이 유통하는 말랑말랑한 뿔이 자라게 되는데 이를 시작하여 60~90일사이의 뿔을 잘라 약재로 사용하는 것을 녹용이라 하며 자를때 많은 혈액이 나와 채취하게 되는것을 녹혈이라고 한다.

이시기에 접어들면 암사슴은 임신을 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숫사슴 접근하게 되면 대개 암컷은 차거나 물어 뜯어 접근을 막으므로 더욱 숫사슴은 처량하게 보이게 된다.

뿔이 자라는 기간에는 뿔이 상할세라 조

심스러우며 겁이 많은 소심한 동물이 된다. 뿔은 8~9월이 되면 서서히 굳기 시작하며 10월 정도되면 아주 딱딱한 뿔로 변하여 뿔을 땅이나 나무기둥에 비벼지며 더욱 날카로운 뿔을 만들고 투쟁의 무기를 만들게 된다.

이때부터 발정은 시작되며 암사슴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부리게 된다. 여기서 몇 차례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를 취한 숫사슴은 모든 암사슴을 거느리고 다른 숫사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며 쉼쉬거리며 위용을 부리게 된다.

이때 암사슴들은 승리한 숫사슴에게 순종하게 되며 한마리의 숫사슴이 거느릴수 있는 암사슴의 마리수는 50여마리까지 가능하나 10~15마리 암사슴에 종로 1마리를 넣어 주는것이 적당하다.

겨울철 발정기 동안 동중간 우위 다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암수를 따로 사육 시켰다가 발정기가 되면 왕위를 차지한 숫사슴만을 암사슴간에 넣어주어 번식을 하는것이 좋다.

만일 암사슴이 발정이 되지 않아 숫사슴에게 쫓겨 다니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면 일방적인 숫사슴의 교미욕으로 암사슴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잠시 격리시켰다가 합사하는 것이 좋다.

발정기간 동안 숫사슴은 다양한 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게 된다.

## 2) 계절별 사육관리

### 가) 겨울철 사육

사슴은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견디어 낼수 있는 내한성 동물이지만 추위를 좋

아하는 동물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기온이 영하 10℃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면 열소모량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운동을 적게 하며 모든 체내 기능이 위축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과량의 사료를 먹인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급성 위식체에 걸릴 위험성이 크므로 아침 저녁으로 운동장을 몇 바퀴씩 돌아다니게 가벼운 운동을 하여 주는 것이 매우 좋다.

운동을 시켜서 추위를 이겨 낼 수 있도록 하며 열량이 많은 사료를 급여해서 체력을 상승 시켜주며 특히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새끼의 경우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체기능이 떨어져서 호흡기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숫사슴의 경우 겨울철 발정기간은 많은 정력을 소모하므로 농후사료를 많이 주어 체력을 보강시켜 주는것이 중요하다.

암사슴의 경우 임신 기간이므로 영양 보충은 필수적이라고 보겠으며 이경우 비타민과 무기물을 많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와 함께 급여 시키는 것이 매우 좋다.

때에 따라 소화촉진 효소제나 위기능 항진제등을 투여해서 질병의 발생을 미리 막아주는 것도 매우 좋다.

어미사슴과 새끼 사슴을 사육하는 경우 힘이 센 사슴과 어미 사슴에게 쫓기어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약한 사슴이나 새끼들은 더욱 약화되어 또한 사료를 물에 버뜨려 주는 경우 힘이센 성록들이 먹고 난후 새끼들이 먹게 되므로 사료가 얼어버려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위를 해야 되며 이때 얼은 사료를 먹게 되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

게 되어 탈수 현상으로 더욱 털은 거칠고 마르며 심하면 장염을 유발 폐사하게 된다.

겨울철에는 가급적 사료를 물에 버뜨려 주는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설사를 하는 사슴은 물을 먹여 탈수현상을 막아야 하며 이때 사육장내 급수 시설이 얼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어야 한다.

약화된 사슴은 격리칸을 마련하여 격리 사육을 하며 보온시설을 하여 추위를 막아 주어야 한다.

### 나) 봄철 사육관리

봄이 되면 날씨가 풀리게 되며 활동이 활발해지고 식욕도 증가하며 새로나온 청초를 즐겨 먹게 된다.

이때에는 사슴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때이므로 영양관리에 신경을 써 영양대사 촉진제를 투여하도록 함이 좋다. 영양 상태가 좋으면 환모가 빨리 오게되어 색깔이 선명한 피모를 갖게 되어 보기 좋은 외모를 갖추게 되나 그렇지 않은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슴은 털이 부서

지거나 빠져서 보기 흉한 상태가 된다.

환절기에 특히 주의할점은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를 가져 과식을 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암사슴은 이때부터 몸이 약간씩 무거워지며 늦봄에 이르러서는 복부의 팽대를 볼 수 있게 되며 분만기가 가까와 오므로 너무 비대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하며 가벼운 운동을 시켜 태아가 과태하지 않도록 함이 좋다.

영양상태가 나쁘다고 콩이나 옥수수를 물에 불려 많이 먹이는 것은 영양가는 많지만 이러한 사료를 분해 소화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크며 특히 옥수수는 위내에서 분해될때 많은 양의 산을 발생시키므로 위점막을 자극 위장 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원인을 만들기도 한다.

숫사슴은 이때에 낙각이 되므로 갑작스런 충격을 주어 놀라 부딪쳐 뺨을 상하게 할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진 료 비 현 황 (회원용)

1988. 1.

구분	지역명	출장비	치료약품비	질각비(농용) (치료약품비포함)	수술비	비고
서근교	의정부, 원당, 벽제안양, 성남, 용인, 구리, 광주	20,000원	10,000 ~ 30,000	엘크 : 90,000 적록 60,000 꽃사슴 : 30,000	대수술 15~25만 보통수술 5~10만	대수술이라 함은 (예: 제1위술 재왕전개술) 보통수술이라 함은 (외상뿔전지전달술)
경일기원	파주, 문산, 포천, 연천, 강화, 안성, 평택, 이천, 여주, 양평, 춘천, 홍천, 수원	40,000원	"	"	"	
중지부역	천안, 은양, 당진, 예산, 상주, 음성, 충주, 괴산, 제천, 영주, 대전, 청주, 공주, 단양, 원주	50,000원	"	"	"	
동지부역	강릉, 삼척, 울진, 인제, 양구, 홍천, 태백, 속초	80,000원	"	"	"	
남지부역	광주, 부산, 마산, 울산, 입실, 영광, 경주, 대구, 영천	100,000원	"	"	"	